

제 2주차 정당성(2012학년도 고려대 오후) 및  
제3주차 혼종 (2011학년도 고려대 오전) 복습문제 II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주제 : 자유

제시문 (가)

계몽이란 인간이 의타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의타적 상태에 처한 인간은 남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는 그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의타적 상태는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서 비롯한다. “과감히 알리고 하라!”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가 바로 계몽의 구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토록 의타적인 상태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그러한 상태는 나태와 비겁에서 기인한다. 의타적 상태에 머무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책이 내 대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성직자가 내 양심을 지키고,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준다면, 나는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돈만 낼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 후견인들은 사람들이 성숙으로의 과정을 험겨워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게 여기도록 하고서는 그들의 감독자 역을 자칭한다. 후견인들은 우선 피보호인을 입 다물게 한 후 잠자코 있는 그 피보호인에게 그가 보행기 없이는 한 걸음도 감히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지시킨다. 그리고 나서 후견인들은 피보호인이 혼자 걸으려고 시도할 때 당면하게 될 위험들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후견인들의 강조와 달리 그 위험은 실제로 크지 않다. 몇 번 넘어지고 나면 혼자 걷는 법을 끝내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사례들이 제시되면 피보호인은 겁을 먹어서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개인이 의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는 자신에게 거의 천성이 되어버린 의타적인 상태를 선호하게 되어 당장은 그의 지성을 정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동안 아무도 그에게 지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령과 규칙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저 기계적 작용들은 의타적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족쇄들이다. 누군가 그 족쇄들을 벗어던진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좁은 도랑을 겨우 건넌 데 불과하다. 그는 아직 그런 유의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다. 무능력에서 벗어나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자유 이외에 계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그저 훈련하라”고, 세무원은 “따지지 말고 그저 세금을 내라”고,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저 믿으라”고 말한다. 도처에서 자유는 제한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방해하고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촉진하는가? 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이 인간들에게 계몽을 가져온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계몽의 진전이 방해되지 않고도,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가령 개인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그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공 조직에서 수행되는 많은 일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메커니즘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정부는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망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만 복종이 있을 뿐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개인은 공적 조직의 구성원이면서 세계 시민사회와 전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저술을 통해 독서 대중에게 진술하기도 한다. 그 경우 그는 공적 조직원으로서 그가 맡은 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펼칠 수 있다. 장교가 근무 중에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의 적합성이나 유용성 여부에 대해 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일 것이다. 그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병역의 의무가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할당된 세금에 대해 얽지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징벌의 수치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학자로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서 대중에게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는 시민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몽 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이성을 확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다는 명백한 조짐들을 우리는 본다. 계몽을 가로막고 의타적인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 이 시대는 계몽 중인 시대이다.

#### 제시문(나)

벌린은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자유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 없는 자유’는 벌린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는 간섭의 실재 여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를 파악하자면 간섭의 자의성과 행위자가 처한 예측의 정도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에 있는 행위자도 간섭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간섭한다고 반드시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 받는다고 반드시 간섭 당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과 지배는 이처럼 별개의 개념들이다.

따라서 간섭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와 지배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는 서로 다르다.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이 각각 가능하다는 사실은 양자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간섭 없는 지배를 잘 보여주는 예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노예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노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예가 간사하거나 아첨에 능한 사람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인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노예는 주인에게 지배되면서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지배 없는 간섭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선거를 통해 뽑힌 시장과 유권자인 시민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간섭할 수 있다. 시장의 간섭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강제나 선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이 동의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그 경우 시민들에 대한 시장의 간섭은 지배가 아니다. 시장은 자의적으로 시민들을 간섭할 수 없으며 시민들도 시장에게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다.

결국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서로 다른 이상이다. 간섭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을 받는 시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장의 간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간섭은 간섭 없는 자유의 이상과 상충된다. 지배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 받지 않는 노예라 하더라도 그는 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란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전체 군주정이건 민주 공화정이건 자유의 향유라는 면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지배 없는 간섭의 이상에 의거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 전체 군주정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노예일 뿐이다. 그 반면 민주 공화정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시민이다.

인간 사회에서 간섭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자의적인 간섭은 지배와 예측의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은 그러한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가 강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시문(다)

“애들아, 너희들도 아까 보았지만, 날짐승들은 한 지도자 밑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위풍이堂堂하나? 우리들 개구리도 한번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바로 턱 밑에 쭈그리고 앉은 멍텅구리 파랑이가 또 주책없이 물었다.

“얼룩아, 지도자가 무에니?”

“지도자란 건 왕이라구두 하구 임금이라구두 하는데, 아까 본 독수리는 이를테면 새들의 지도자요 왕이요 임금이란다.”

저쪽에서, 역시 파랑이에 못지않은 멍텅구리 검둥이가 바보 같은 소리로 물었다.

“얼룩아아, 왕이란 건 그렇게 막 잡아먹는 거니이? 아이구 무시라아.”

얼룩이는 한번 픽 웃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지도자의 참뜻을 아는 것은 자기만이라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못하는 놈은 잡아먹지, 아니 잡아먹어야지.”

“얼룩아아,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니이?”

파랑이다.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고 게으른 것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지.”

“얼룩아아, 그런 낮잠 자는 것두 잘못하는 거니이? 어쩐지 무시무시하구나아.”

검둥이다.

“애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새들이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 밑에 일사불란의 질서를 유지하고 단결하였는데, 만약 저마다 멋대로 날뛰는 우리 개구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무어라고 하겠느냐 말이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도 당당한 지도자를 받들고 이 무질서를 질서로 정돈하기를 제의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께 그렇기두 하구나아.”

파랑이다. 모두들 그럴싸하게 구미가 도는 모양이었다.

“여기 반대하는 개구리는 앞발을 들어라.”

발을 드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유독 맨 뒤에 자빠져 있던 초록이가 반쯤 머리를 들고 반박하였다.

“얼룩아, 보기두 싫다. 높은 데서 뿔내지 말구 내려와. 네나 내나 마찬가지로. 지도자구 질서구, 되지 못하게스리. 나는 이대루 자뿌라질 자유, 낮잠 잘 자유, 제멋대루 거꾸로 설 자유가 좋다.”

뱃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으나 눈앞에 있는 군중은 그것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이 다행이었다.

얼룩이는 초록의 발언을 묵살하기로 하였다. 그는 다시 한 번 따졌다.

“애들아,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이의가 없지? 있으면 앞발을 들어라.”

역시 드는 놈은 없었다.

이때 파랑이가 부스스 일어섰다.

“모두 좋은 모양이구나아. 얼룩아 그럼 니가 그 지도잔가 한 걸 하려므나아. 그리고 내가 좀 낮잠 자두 잡아먹진 말아라아, 증말이야.”

이에 폭소가 터졌다. 모두들 배를 거머안고 웃어 났다. 특히 초록이는 배를 안고 뱅뱅 돌아가면서 허리를 꺾었다.

“얼룩이는 안 된다. 저번에 검둥이한테두 씨름에 졌지 않아? 게다가 목소리두 가느다란 것이 어디 돼먹었어?”

야무지게 생긴 놈의 반박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아까 날짐승 떼가 오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내뺐 것이 바로 얼룩이가 아냐? 그 따위 형겅막대 같은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나? 적어두 독수리보다 몇 배 나은 놈을 골라야 할 거 아냐?”

“웁소!”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 문제

Ⅱ.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Quiz 1. <보기> 를 참조하여 제시문 (나)의 주제를 6글자로 쓰시오.

<보기>

논술에서 제시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한 제시문 안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해당 제시문의 논지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2012학년도 연세대 수시 사회계열의 제시문 (가)를 보자.

[문제 발문]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도 그리스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에는 이미 일찍부터 신앙과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오르페우스교의 열광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자 했다. 앞의 두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영혼과 재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종파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민족 전체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종파들만이 머리를 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민족이 이미 자체 내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친 무리 본능이나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동요 상태를 사람들은 흔히 윤리의 타락이나 부패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알이 성숙하여 껍질이 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상당 부분 같은 유형과 같은 색깔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만족되고 관찰되어야 할 반대의 요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꾸로 힘과 지배욕이 매우 강한 천성을 지닌 인물이 단지 종파에 국한된 미약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치는 경우, 이로부터 그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인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전자) ‘새로움을 절대화, 보편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다수 (그리스나 남유럽의 다수)’
- ✓ (후자) ‘새로움을 절대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수 (북유럽의 다수)’

이렇게 두 부류의 다수가 등장하며 마치 이들을 비교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논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 문장으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다. 즉, 후자 부류의 다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의 제시문 (나)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동등한 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제시문의 후반부에서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는 필연성을 인정하며 이상(理想)으로 설정하고 있다.

Quiz 2. <보기>를 참조하여 Quiz 1의 정답에 해당하는 6글자의 동의어를 (가)에서 찾아 13자로 쓰시오. 그리고 그것이 왜 Quiz 1의 정답과 일치하는지 100자 내외로 밝히시오.

<보기>

2009학년도 수시는 대응적 비교 600자와, 논증(우월논증) 400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앞서 2013학년도 모의에서는 대응적 비교 600자와 우월논증 300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학년도 모의와 2009학년도 수시의 분량 차이 100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2009학년도 수시에 제시문 (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제시문 (가)에 관해 100자 만큼 언급해 주어야 한다.

(퀴즈 정답)

Quiz 1. 지배 없는 자유

Quiz 2.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

지배 없는 자유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는 공통적으로 ‘간섭(이를 떼면 세금이나 군대)’의 필연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부당한 간섭(자의적 간섭)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나)는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의 개념을 구분하며, 후자를 중시한다. 이때 ‘지배 없는 간섭’은 허용될 수 있다. 즉, 간섭을 받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 증진을 위해 강제, 선동 없이 합의하는 것이다. 이 때 간섭 가운데 지배가 될 수 있는 ‘자의적 간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민이 이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얼룩이,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극단적 지배와 극단적 자유라는 상반된 입장을 대변한다.

얼룩이의 견해는 지배를 통한 질서 구축으로 (나)의 이상과 다르다. 그는 선동을 통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 하며, 이후 거스르는 이를 응징하겠다고 밝힌다. 즉, 선동이나 강제가 존재하며, 자의적 간섭이 행해지고 이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의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과 배치된다.

반면 초록이의 견해는 간섭조차 부재한 절대적 자유의 추구로 역시 (나)의 이상과 다르다. 그는 지배, 간섭 모두를 거부한다. 질서를 위해 자유를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지도자 선출 행위 자체를 반대한다. 즉 (나)에서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섭을 감수하는 지배 없는 간섭의 개념과 배치된다. 또한 (나)의 이상인 지배 없는 자유는 자의적 간섭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전제할 뿐, 간섭 자체를 배격하지 않으므로 초록이의 견해와 배치된다.

(가)와 (나)의 견해는 상통한다. (가)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는 필연적 간섭의 존재를 타파할 수는 없으나 그 타당성을 따짐으로써 대중을 계몽한다. (나)의 지배 없는 자유 역시 강자의 자의적 간섭만을 배격한다. 한편, (다)의 얼룩이는 지배를, 초록이는 간섭조차 부재한 순수한 자유를 역설하며 대척점에 있다. 이 때 자유에 관해 현실적으로 (나)의 이상이 옳고, (다)의 양자 모두 타당하지 못하다.

사회 유지를 위해 필연적인 간섭이 존재하기에 초록이의 견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또한 이를 제어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얼룩이의 견해처럼 자유의 대척점인 지배가 대안이 되어 버린다. 순수한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간섭을 인정하고 그 정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이 최대한의 자유 보장 수단이다. (1,089자)

#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 정답 및 해설

1. 정답 Points
2. Data Mining

## 1. 정답 Points

### 2번 문제 정답 Points (추정, 총배점 50점)

[2번 문제 전반부 : 비교+대응 600자]

비교기준 : '지배' 인가, '자유' 인가

(나)의 주제 : '지배 없는 자유'

지배 없는 자유에서 지배 없는 간섭은 허용됨. 다만,

전제조건 1. 사회 구성원들이 강제, 선동 없이 자발적으로 간섭에 합의할 것.

전제조건 2. 간섭은 허용하나, '자의적 간섭' 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할 것.

제시문 (다)-얼룩이

[결론] 얼룩이의 견해는 단순히 지배를 통해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의 이상과 다르다.

[근거] (나) : (다) 대응을 통해

(대응 1) 얼룩이는 파랑이 등, 다른 개구리들의 무지(명칭함)을 이용하여 이들을 선동, 지도자가 되려고 함. [전제조건 1과 불일치대응]

(대응 2) 얼룩이는 지도자가 된 후 자신의 말에 거스르는 자를 잡아먹고 응징하겠다고 밝힘. [전제조건 2와 불일치대응]

제시문 (다)-초록이

[결론] 초록이의 견해는 간섭조차 부재한 절대적 자유의 추구로 (나)의 이상과 다르다.

[근거] (나) : (다) 대응을 통해

(대응 1) 초록이는 지도자를 뽑는 행위 자체, 즉 합의된 간섭조차 반대함. [전제조건 1과 불일치대응]

(대응 2) (간섭 자체를 반대하므로 자의적 간섭에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음)

## 2. Data Mining

### 제시문(나)

- (1) 벌린은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자율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 없는 자유'는 벌린의 분류에 포섭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는 간섭의 실제 여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를 파악하자면 간섭의 자의성과 행위자가 처한 예측의 정도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에 있는 행위자도 간섭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간섭한다고 반드시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 받는다고 반드시 간섭 당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과 지배는 것처럼 별개의 개념들이다. 따라서 간섭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와 지배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는 서로 다르다.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이 각각 가능하다는 사실은 양자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 ✓ 벌린은 '간섭'의 유무로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간섭 있는 자유 (자율이 실현된 상태)와 **간섭 없는 자유** (단순히 간섭이 부재한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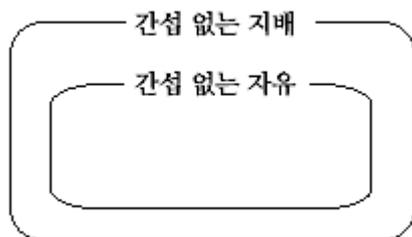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지배 없는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배'의 유무로 간섭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도 필요하다.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서로 다르다.

- '간섭 없는 지배'
- '지배 없는 간섭'

이 각각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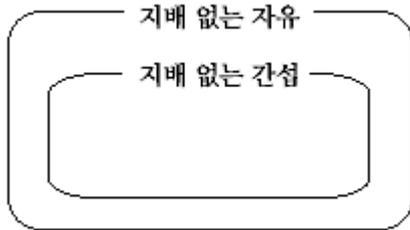
- (2) 간섭 없는 지배를 잘 보여주는 예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노예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노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예가 간사하거나 아첨에 능한 사람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인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노예는 주인에게 지배되면서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 ✓ '간섭 없는 지배'는 '간섭 없는 자유'와 같을 수 있다.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일 경우 노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노예가 아닌 것은 아니다.

➔ 즉, '간섭 없는 지배'는 '간섭 없는 자유'의 동의어로 파악한다.

- (3) 지배 없는 간섭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선거를 통해 뽑힌 시장과 유권자인 시민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간섭할 수 있다. 시장의 간섭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강제나 선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이 동의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그 경우 시민들에 대한 시장의 간섭은 지배가 아니다. 시장은 자의적으로 시민들을 간섭할 수 없으며 시민들도 시장에게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다.



- ✓ '지배 없는 간섭'은 '지배 없는 자유'와 같을 수 있다. 시민이 시장을 뽑는 것이 그 예이다. 시민은 시장을 뽑을 때
- 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섭에 합의한다. 이 때 선동이나 강제가 없어야 한다.
  - ② 또한 복종(자의적 간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이 따를 필요가 없다.
- ➔ 즉, '지배 없는 간섭'은 '지배 없는 자유'의 동의어로 파악한다. 또한, 지배 없는 자유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추출해 내어 대응에 활용한다.

- (4) 결국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서로 다른 이상이다. 간섭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을 받는 시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장의 간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간섭은 간섭 없는 자유의 이상과 상충된다. 지배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 받지 않는 노예라 하더라도 그는 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란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전제 군주정이건 민주 공화정이건 자유의 향유라는 면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지배 없는 간섭의 이상에 의거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 전제 군주정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노예일 뿐이다. 그 반면 민주 공화정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시민이다.

전제 군주정에서는 아무리 간섭이 없다 해도 노예일 뿐이다.

하지만 민주 공화정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유로운 시민이다.

- ➔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 가운데, 지배 없는 자유가 더 좋은 것이다.
- ➔ 즉 '나'의 주제는 '지배 없는 자유'이다.

- (5) 인간 사회에서 간섭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자의적인 간섭은 지배와 예속의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은 그러한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가 강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 간섭은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에 따라 자의적 간섭에 대한 저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시문(다)-얼룩이

“애들아, 너희들도 아까 보았지만, 날짐승들은 한 지도자 밑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위풍이堂堂하냐? 우리들 개구리도 한번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바로 턱 밑에 쭈그리고 앉은 멍텅구리 파랑이가 또 주책없이 물었다.

“얼룩아, 지도자가 무에니?”

“지도자란 건 왕이라구두 하구 임금이라구두 하는데, 아까 본 독수리는 이를테면 새들의 지도자요 왕이요 임금이란다.”

저쪽에서, 역시 파랑이에 못지않은 멍텅구리 검둥이가 바보 같은 소리로 물었다.

“얼룩아아, 왕이란 건 그렇게 막 잡아먹는 거니이? 아이구 무시라아.”

얼룩이는 한번 픽 웃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지도자의 참뜻을 아는 것은 자기만이라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못하는 놈은 잡아먹지, 아니 잡아먹어야지.”

“얼룩아아,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니이?”

파랑이다.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고 게으른 짓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지.”

“얼룩아아, 그런 낮잠 자는 것두 잘못하는 거니이? 어쩐지 무시무시하구나아.”

검둥이다.

“애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새들이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 밑에 일사불란의 질서를 유지하고 단결하였는데, 만약 저마다 멋대로 날뛰는 우리 개구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무어라고 하겠느냐 말이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도 당당한 지도자를 받들고 이 무질서를 질서로 정돈하기를 제의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께 그렇기두 하구나아.”

파랑이다. 모두들 그럴싸하게 구미가 도는 모양이었다.

“여기 반대하는 개구리는 앞발을 들어라.”

발을 드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얼룩이’는 다른 개구리들의 동의를 받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듯 보이고, 이 때 개구리들도 날짐승들처럼 질서와 위풍을 갖추기 위한다는 명목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개구리들의 멍청함을 이용하여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

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섭에 합의한다. 이 때 선동이나 강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얼룩이는 ‘선동’을 통해 지도자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된다.

얼룩이는 언뜻 동의를 구하고 있는듯 보이지만 사실 개구리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선동하고 있음.

## 대응 (불일치)

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간섭에 합의해야 함. 또한, 이 때 선동과 강제가 없어야 함.

또한, ‘얼룩이’ 는 지도자가 된 뒤 파랑이에게 말하길, ‘잘못하는 놈은 잡아먹겠다’ 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나)에서 ‘지배 없는 자유’ 의 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

② 또한 복종(자의적 간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이 이에 저항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얼룩이는 ‘복종’ 을 요구하며, 멋대로 자신의 말에 거스르면 잡아먹겠다고 자의적 간섭의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와 배치된다.

얼룩이가 지도자가 된 뒤 자신의 말에 거스르는 자는 잡아먹겠다고 밝힘.

## 대응 (불일치)

② 또한 복종(자의적 간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이 이에 저항 가능해야 한다.

➔ 얼룩이는 지배 없는 자유의 전제조건 1, 전제조건 2와 모두 배치된다. 따라서 지배 없는 자유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는 단지 지배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Tip** 얼룩이는 ‘지배’ 이며, 양자비교의 원리에 따라 얼룩이와 초록이 사이에는 상반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초록이는 지배의 반대인 ‘자유’ 일 것으로 추측한다.

## 제시문(다)-초록이

유독 맨 뒤에 자빠져 있던 초록이가 반쯤 머리를 들고 반박하였다.

“얼룩아, 보기두 싫다. 높은 데서 뽀내지 말구 내려와. 네나 내나 마찬가지로야. 지도자구 질서구, 되지 못하게스리. 나는 이대루 자뿌라질 자유, 낮잠 잘 자유, 제멋대루 거꾸로 설 자유가 좋다.”

벋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으나 눈앞에 있는 군중은 그것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이 다행이었다. 얼룩이는 초록이의 발언을 묵살하기로 하였다.

‘초록이’는 얼룩이의 ‘자의적 간섭’에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구 질서구, 되지 못하게스리’라는 말을 함으로써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즉, 초록이는 순수한 자유만을 원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간섭에 합의할 생각 자체가 없다.

초록이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 (간섭) 자체를 반대하고, 오직 자유만을 원함.

## 대응 (불일치)

지배 없는 자유에서 간섭은 필연적으로 존재함. 또한 이익을 위해서 간섭에 합의할 수 있음. 자의적 간섭을 배격하는 것이 중요함.

➔ 초록이는 간섭 자체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지배 없는 자유와는 역시 다르다. 그는 단지 순수한 자유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